

사서와 행복의 추구

헤인즈 맥무렌 씀
김 영 귀 역
〈부산여대도서관학과장사〉

이 논문은 *Library Journal* V. 106, N. 11 (June 1981) pp. 1172~1174에 실린 Haynes McMullen의 "Librarians and The Pursuit of Happiness"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 Haynes McMullen은 North Carolina의 Chapel Hill에 있는 North Carolina University의 도서관학교의 도서관학 교수이다. "Librarians and The Pursuit of Happiness"는 원래 Joel M. Lee와 Beth A. Hamilton이 편집한(Linnet Bks, Shoe String Pr., Hamden, Conn, 1979) As much to Learn as to Teach; Essays in Honor of Lester Ashheim에 있는 "American Librarians and The Pursuit of Happiness."에 실린 것이다.

사서들은 독립선언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토마스 제퍼슨이 언급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제3장 즉,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이다. 캐나다사서, 영국사서, 그리고 몇몇 다른나라 사서들은 나중에 문헌에 기록된 George III세에 관해 제퍼슨이 쓴 몰인정한 것에 대해 이의(異意)를 제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삶과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행복의 추구를 고무(鼓舞)하는데 열의가 없었다면 미국사서들보다 더 나빴을 것이다. 제퍼슨은 결코 행복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명확히 일반적인 삶에 관한 만족의 상태로서의 행복을 얼마간 생각했다. 행복이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행복이 되든지간에 도서관보다 사람들의 행복의 추구를 도와주도록 호의적으로 배치된 훌륭한 사회기관을 상상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른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생각해 보자. 박물관은 물건을 황홀히 감상하기를 좋아 하는 사람에게만 매력이 있다. 말하자면 공공고속도로 제도가 진실로 여행을 즐기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또 공공공원의 제공은 진실로 사람들의 정신에 생기를 줄 수 있다. 수백만 사람들이 작은 공원의 화단사이를 산책하거나 큰 공원을 마음내키는 대로 어슬렁거림으로써 더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은 다른 기관들을 능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도서관

의 이용자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신체적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이용자는 상상력의 이용을 통해서 쉽게 다른 인간과 접촉할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취한 <가장 중요한 형태의 훈련일 수 있다. 상상력 발휘가 우리들의 행복의 추구에 있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사서들은 자주 상상력의 이용을 고무(鼓舞)시키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서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상상력과 공상

먼저, 우리는 삶을 위한 상상력의 중요성, 특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의 중요성에 대해 최근에 수많은 심리학자, 커뮤니케이션 전공의 학생들, 문학비평가들이 실험을 지도한 결과 두개의 개념으로 된 이론을 개발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 모든 사람들은 예전에 알고 깨달았던 것보다 더 많이 공상한다. 그리고 이것은 더할나위 없이 건전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람이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을 읽을 때 그 혹은 그녀는 두개의 요소 즉, 저자가 가진 것과 「동일성 방식」의 성격형태의 공상을 이용하여 새로운 공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심리학적인 훈련이 있는 같은 이는 Norman N. Holland에서 다양한 성격형태의 여러 독자들에게 꼭 같은 시와 소설을 토론케 하여 질문하므로써 독자들의 성격이 그나 그녀의 시나 소설에 대한 개념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했다.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예술작품에 대해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 사서들은 알고 있었다. 서평가(書評家)들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연구에서 모든 독자는 실제적으로 그 자신의 소설이나 시를 창조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든지(그나 그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때 마다 나타난다.

우리 사서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추측했어야 했으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특히 상상력의 작품인 소설이 매우 인기가 있다는 것과 모두 우리들의 상품인 그것이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최소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 같다.

우리들 문제의 원인은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강하고도 성실한 관심에 있었

다. 우리는 자신들을 「정보전문가」라고 부른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독자들의 정서 생활을 돕는 자료와 사실을 담은 자료 사이의 차이점을 지나쳐 버린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보」라 부른다. 만약 질문을 받았다면 「오! 그러나 상상력의 작품은 ‘정보’라는 용어아래 적용이 된다. 결국, 사람들은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자주 무엇인가를 배운다」라고 답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문학자가 「나는 과학과 기술을 인문학의 분과(分科)로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결과를 증명할 실험보고서를 읽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명하다. 우리들 대부분은 과학잡지 읽는 주요 성과가 정서적인 자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정보와 정서

우리들 사서가 첫째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과 정서의 커뮤니케이션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은 최근의 해이다. 19세기 초에 있어서 사서들은 그 차이를 인식했고 도서관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자료의 이용을 격려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던 것이다. 간단히, 정서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자료의 양(量)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여전히 효과적이다.

어떤 종류의 자료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가? 즉, 그들에게 알리거나, 그들의 상상력을 훈련시키는 기회를 주는 자료인가? 그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점열사건의 보고서를 보므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종류에 관해 어느정도 배울 수 있다. 점열관이 어떤 작품에 손을 댈 때 그나 그녀는 점열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다.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에 속하는 도서, 정기간행물 그리고 영화를 그들의 지적 삶을 위해 사람들이 이용한 경우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들의 정서적 삶에 기여하게(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간에) 한 것인가? 이 질문은 어떤 경우에도 해답되어 질 수 없다.

그러나 대개 그것은 사람들이 영화나 소설속의 노골적인 성묘사를 반대할 때 가능하다. 이런 자료의 많은 이용자들은 정보보다 앞서 있고 점열관은 그것을 알고 있다. 이용자들은 보거나 읽는 것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점열관은 그들이 즐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날 점열에 관한 정보의 한 근원은 Newsletter Intellertual Freedom이다. 「점열관의 목표」라는 표제아래 실린 기사를 검토하므로써 우리는 점열관의 관심의 본

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비록 대부분의 기사가 짧막하고, 잡지가 모든 사건을 취재할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세번에 걸친(September and November 1980 and January 1981)기사의 부대분이 참고문헌을 생략하고 있으며, 사실과 공상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은 사실(48%)보다 가벼운 우세의 공상기사를(52%) 신고 있었다. 「공상」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도서, 단편소설, 영화, 혹은 모든 상상의 이야기를 말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위해 쓰여 졌다. 이 비율은 실제로는 공상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동향(動向)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1977년의 비슷한 계산은 사실 29%와 71%의 공상기사였다. 하여튼 검열관은 여전히 우리가 얻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는 즐거움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어 보인다.

행복에 대한 분류

만약 도서관이 자료를 제공한다면, 그 자료가 합법이든 비합법이든간에 그것은 사람들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공헌을 하므로 사서들은 자료 그자체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도서관 분류표 —Dewey와 LC—를 철저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많은 경우에 이들을 무시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 둘 다(Dewey와 LC) 분명히 사람들의 정서, 태도, 혹은 기분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신중하고도 사실에 중점을 두는 신사들이 오래전에 창안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분류표아래서 모든 개인 전기는 비록 그 전기작가가 그들의 피전자(被尊者)를 미워했건 존경했건 간에 같은 서가에 나란히 꿰히게 된다. 이런 분류표는 아름답고 정성들인 결혼식을 어떻게 치르는가를 말하고 있는 책과 아름답고 정성들인 결혼식의 결과로 나타난 정서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파탄을 얘기하고 있는 책을 나란히 놓게 한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사실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분류표를 고수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모순되기 때문에 우리를 「지적 자유」의 보호자가 될 수 없게 할 것인가? 만약 사서들이 이용자들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그들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분류표를 무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또한 사서들은 다소간 사람들의 일시적인 기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후원자는 때때로 Cheerful한 소설을 원한다거나 우울한 시는 많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참고도구가 때때로 도움이 된다. The Fiction Catalog에는 「Cheerful

Novel]이라는 표제가 있다. 몇몇 표제, 즉 탐욕, 타락, 잔학, 범죄 등은 아마 진지한 독자들을 우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카드목록에서 「Cheerful」이라는 표제를 보는 것은 소용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몇몇 도서관은 더욱 Cheerful한 도서, 레코드 몇 영화필름의 수집을 시도하여 그들을 한 곳에 비치하여 「Cheerful Corner」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장소엔 더욱 염세적인 자료를 비치하여 「Room for Realists」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장서는 상상력의 작품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용자에게 더욱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그룹을 만들 수도 있겠다. 즉, 마음이 순수한 자를 위하여 「Inspiration Nook」라든가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Sexy Section」같은 것을.

기술과 행복

현대 기술은 행복의 추구에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전자게임의 인기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에 대한 하나의 조그만 징조였다. 이런 전자게임은 도서관, 학교에 까지 들어 왔다. 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의 「서지통정연구소」에 있는 새로운 미니컴퓨터도 아직 서지상 아무것도 통정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점점 더 사용하기 좋은 여러가지 게임으로 장치되고 있다. 확실히 사서들은 가정이용이나 도서관에서 이용하기 위해 전자게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의 정서적인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서들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그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컴퓨터에 편치할 수 있다. 만약 그 사람이 가명(假名)을 사용하여 자신의 기호(嗜好)의 기록이 보존되었는지를 물으면서 단추를 누르면 가명과 실명(實名) 둘다 가능하다. 나중에, 이용자는 질문하기를 「지난 달에 구입한 공상과학소설중 어느 것이 나에게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혹은 틈에이저는 더 정확히 말한다. 「내가 생각하길 나는 두 여자친구와 동시에 사랑에 빠져 있다. 이런 종류의 상황을 당신 도서관에 있는 소설속에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독자의 조연자로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물론 자체 업무수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잘 수 있다. Feedback은 기계의 선택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Error를 고려하여 그 방법을 변화시킨다.

분명히, 컴퓨터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행복의 추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 출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현재 정보학자들은 잠시동안 정보에 관하여 잊어버려야 할 것이며 즐거움에 관한 생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CAEL(Computer-Assisted Enjoyment of Libraries)의 개발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사서들이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정서적인 삶을 즐기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그들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컴퓨터의 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비록 수작업을 하는 도서관일지라도 사실에 한정한 분류표를 문제시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도서를 더 유용한 형태로 배치하려고 한다면 개선할 수 있다. 사서는 정서적으로 만족할만한 자료를 훌륭하게 공급하므로써 이용자들의 행복의 추구를 도와 주는데 부끄럽없이 착수해야 한다.

韓國圖書館協會 出版案内

100 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1街100-177 (社)韓國圖書館協會
☎ (22) 4864 · 5613 對替計座 서울中央537530

| | | | |
|----------------|---------|--------------|---------|
| 韓國十進分類法 第3版 | 25,000원 | 古書分類目錄法(上) | 3,500원 |
| 韓國目錄規則 第3版 豫定價 | 10,000원 | 韓國十進分類法解說 | 3,500원 |
| 公共圖書館의 施設 | 5,000원 | 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 3,500원 |
| 非圖書資料의 整理 | 3,500원 | 西洋圖書館史 | 3,500원 |
| 參考奉仕論 | 3,700원 | 公共圖書館運營 | 3,500원 |
| 情報科學과 컴퓨터 | 3,500원 | 發展途上國의 圖書館 | 3,500원 |
| 情報經濟學原論 | 4,500원 | 圖書館 및 文獻利用法 | 3,500원 |
| 大學圖書館建築計劃 | 8,000원 | 中國의 典籍 | 3,500원 |
| 圖書館學概論(專門大) | 3,900원 | 圖書館과 社會 | 3,500원 |
| 圖書館學概論(任鍾淳) | 3,500원 | 大學圖書館 | 3,500원 |
| 韓國圖書館史研究 | 3,500원 | 舊韓末古文書解題目錄 | 5,000원 |
| 圖書館統計 및 評價 | 3,500원 | 韓國의 冊板紋樣 | 20,000원 |
| 公共圖書館 | 3,500원 | 圖書館과 資料의 活用法 | 3,500원 |
| 韓國目錄規則解說 | 3,500원 | 어린이 圖書館 | 3,800원 |